



제목	Суфизм и суфи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Наука
발행일	1965.
저자	Бертельс Е.Э.
출판도시	Moscow
페이지수	527
ISBN 또는 ISSN	

내용 요약

『수피즘과 수피문학』은 러시아의 동양학자인 E. E. 베르텔스가 1920년대에 쓴 수피즘과 수피 시들에 대한 연구이다. 당대 동양학계 분위기는 고대 페르시아 시 분야가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인 장르는 영웅 서사시, 궁중시, 수피즘을 내용으로 한 신비로운 시였다. 사나이, 니자미, 루미, 하피즈같은 시인들은 수피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피즘 교리 연구는 필수적이었다. 또한 수피즘이 실제로 어떤 종교였으며, 터키 문학 발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저자는 아시아 박물관에서 페르시아 필사본의 목록을 만들고 카탈로그화 작업을 하면서, 학술적으로 중요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들, 특히 수피즘 관련 자료들을 찾아 여러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단행본으로도 출간하였다. 그는 수피즘의 기원, 수피즘 사상의 발원, 수피즘 용어 개념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서 수피즘의 영향을 받은 시들을 학문적으로 재해석 하였으며, 수피 시의 발전방향과 수피즘의 여러 학파들의 계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수피 시의 구성, 수피교 지도자의 개인사,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적 일생과 전설적인 일생의 상관성 등을 연구하였다. 베르텔스는 또한 수피즘과 조로아스터교, 네오플라톤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하면서 이들의 문학과 상호작용, 그리고 연관성도 살펴보았다.